

## 경제위기설의 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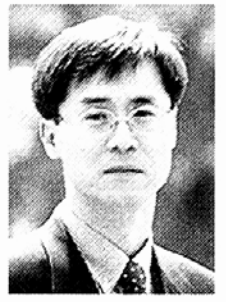
모든 매스컴이 경제위기설에 대한 찬반토론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1997년 말 경고 한 번 없이 맞이한 외환위기로 인해 이번엔 모두가 나서 우리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을 거론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못지 않게 크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정치적 이슈화... 국민 불안

더욱이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나타난 것처럼 평균 소비자행이 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골프관객만도 97년의 3배가 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띠가 풀렸다는 기쁨은 이같은 위기감을 채감하는 위기를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설에 대해 우리의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정부는 치밀한 예방전략을 세워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경청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경제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커녕 책임질 일은 서로 떠넘기기식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주권 부서의 협력적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물론 과소비를 비롯해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나 단기외채비율의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침체와 예상불가수준의 상승 등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유거사 지표를 들이대면서 낙관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부의 경제전문가와 언론 그 리고 정치권이 가세하여 정부의 발표에 집중포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역시 경제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경제전문가 그룹 역시 경제주체에 대한 비판론 보다는 다소 의도적인 낙관론 또는 조심스런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게끔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정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위한 협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예방책이자 21세기를 위한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 과소비·골프여행 등 자제

또 하나,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다져져야 한다. 300만원이 넘는 여행상품이 불타나게 팔리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평일도 북적달만큼 붐비며, 해외여행객들이 들고 오는 선물보따리가 갈수록 커져가는 풍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위기가설이 할 그대로 진짜 위기로 닥칠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소비증가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소비는 그동정적으로 작용할 때 또한번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 예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아닌 금리



경기도 용인시 서북부지역. 이미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숲을 배경으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림이 우거졌던 아산이 파헤쳐지고 있다.

# 파고 또 파고...신음하는 국토

## 산허리에 고층아파트 계곡엔 러브호텔

### 지자체 지방세 빌미 난개발 부채질

국토가 파고되고 있다. 이른바 '난(亂)개발'로 일컬어지는 제대토목 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번지면서 대도시와 지방, 도회지와 농촌 할 것 없이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산허리에 초고층 아파트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고, 숲을 파헤친 계곡엔 카페와 러브호텔이 파고들었다. 아늑했던 강변은 요란한 간판을 달은 건물들에게 점령당했다. 자연환경은 물론 갖가지 생물이 멸종당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2천만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변은 다투는 대로 파헤치는 전원주택 공사로 새 지옥판 휴먼디에 합쳐져 있다. 90년 2580여개였던 팔당호 유역 음식점은 98년엔 9500여개로 3.7배나 증가했고, 숙박업소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의 산림은 재개발과 도로, 택지조성 명목으로 지난 10년 새 33%가 줄었다. 국토의 허리 백두대간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광산 채굴과 채석,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향토문화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산줄기는 곳곳에서 허리가 끊겼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은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 서북부지역에는 현재 18곳에서 13만여 가구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자상주의의 미명아래 녹지에 대한 자연생태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개발로 인해 임진왜란 성터 등 문화재도 가차없이 폐기돼 버렸다. 마지막 청정지역이라는 제주도의 서귀포시는 절경을 자랑하는 자구리 해안 일대를 매워 각종 유흥·오락시설을 들이는 4만평 규모의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경관을 대표하는 기생화산을 가운데 70여개는 벌채석재채취 등으로 파괴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의 앞바다인 경기만에서는 하루 평균 트럭 1만 대분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다.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개펄, 철새가 쉬어가 는 습지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굉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전국에서 15t 트럭 500여만대 분량의 흙과 돌을 파냈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 18년간 매년 1만6000ha의 농지와 7000ha의 산림이 사라졌고, 생물종은 500종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국토가 황폐해져가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에만 목을 빼고 있다. 주택보급을 확대하는 물량 목표달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정부도 그렇고, 지방세 마련을 빌미로 난개발을 부채질한 지자체를 역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용인에서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개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무계획적이고 무제한적인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다. <중야환경 근법문경>을 보면 부처님은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주자적, 주관적,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소중함을 강조한 말이다. 또 <범망경>에서는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해야 한다"며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국토관리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국토가 회복불능에 빠지기 전에 국토과과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국토가 황폐화되면 물속 우리의 삶도 그만큼 황폐화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포돌이 양심방' 한달 춘지 1천만원 반납

경찰은 춘지반납을 위한 '포돌이 양심방' 제도를 시행한 지 한달만에 1,000여만원의 춘지가 반납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내부개혁과 자정 차원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일선서에 설치, 경찰관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받은 금품을 자진 반납하도록 한 '포돌이 양심방'에는 현금 980만원과 상품권·주유권 33만원이 신고됐다고. 신고건수는 현금만 총 98건이며 양주와 담배, 고가의 장식품도 포함돼 있었다. <미중양심법>에 "속마음이 정직하고 결모양이 유희(柔和)하며, 모든 사곡(私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다. 정직한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이같은 풍토가 자리잡았다면 국민들은 경찰을 경전말승처럼 보살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춘지를 건네는 사람들은 "아침하는 마음은 도와 어긋나나. 아침은 자타를 속일뿐이다"는 <유교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 정신장애여성 "성폭행특별법 있으나 마나"

정신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위협수위에 달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자체조사해 22일 발표한 여성 정신지체장애인 성폭행 사례를 보면 대다수 직장 동료, 이웃, 아버지 친구, 친척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친교적인 강간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체장애인을 성 노리개로 삼는 파렴치범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쪽으로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야아함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니라. 나는 천상에서나 인간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배움을 보지 못하였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이는 큰 공덕을 얻을 것이고, 명예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감로법을 얻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일반의 인식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 출판연 조사, 성인 1년에 9권 독서 책은 안보고 비디오는 보고

성인의 경우 1년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22.2%에 달하는가 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9%나 꽤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초·중·고생 각 1000명씩 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연간평균 독서량은 9.3권으로 일본의 18권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비디오·영화(19.1권)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타니파타>에 "깊은 물과 얇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다의 얇은 개



# 불자정보

불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x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리터 이상 계재시 착인예택을 드립니다.

### 사찰 안내

- ◆ 위치: 인천
- ◆ 평수: 1500평 이상 (국유지)
- ◆ 건물: 건장28평, 임법당, 방1, 주방, 욕실
- ◆ 특징: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고, 산세 좋은 청정도량임.
- ◆ 가격: 월세가능(담사후 결정)
- ◆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874-0194

### 사찰 안내

- ◆ 위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 평수: 6만평 도랑내에 부지 1천 8백평 현재 천막, 천막 조형물이며 기와, 단층 40평 청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 특징: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매화가 뚜렷하고 통행이 일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항 부지임
- ◆ 가격: 담사후 절충

0373)378-1618/011)512-7155

### 포교원 운영하실분

- ◆ 위치: 서울시 송파구
- ◆ 평수: 약40평, 법당 20평 이상, 큰방2개, 주방
- ◆ 특징: 불사시설 완비
- ◆ 가격: 보증금+시설비 3천 8백만원 (사정상 급매)

011)9928-5945

### 사찰 안내

- ◆ 위치: 대전 보문산
- ◆ 평수: 부지 국유지 사용 허가필 100평, 임법당15평, 방6개, 산신각, 별채
- ◆ 가격: 담사후 절충

042)255-5063  
011)9766-5563

### 사찰 안내

- ◆ 위치: 충남 온양시
- ◆ 부지: 300평 (년 28만원)
- ◆ 건물: 법당 목조단청12평, 산신각 4평, 요사 13평(목실2개)
- ◆ 가격: 6000만원

017)705-6531

### 사찰 안내

- ◆ 위치: 경북 경주시 선도산 무열왕릉역
- ◆ 대지: 105평, 골기와33평, 아래채10평 (현재사찰 운영중)
- ◆ 가격: 1억 2천만원

0561)743-5730

### 포교당 안내

- ◆ 위치: 상계동 당고개
- ◆ 정갈 편한 포교당
- ◆ <산이깊은집>을 인수 할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 허인 함장

02)939-7121  
011)9972-7121

### 요양원터 안내

- ◆ 위치: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 가액: 5천만원 (가절절충)

011)9646-3220

### 역학 수강생 모집

- ▶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 ▶ 강사: 임윤문 원장(명학비해 외 20여년 저술) 김희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 ▶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0인원 입금후 전화)
- ▶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 포교원 안내

- ◆ 위치: 대전 동구 흥도동 72-27 3층 보현정사
- ◆ 평수: 법당35평 중 주방, 상담실, 침실 삼존불 각 탕화, 종
- ◆ 가격: 전세 2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42)627-5925/011)742-5925

### 사찰운영 안내

- ◆ 위치: 서울 등산로 약수터 입구
- ◆ 대지: 65평, 법당25평(2층) 요사 50평(1층), 지하실 20평
- ◆ 특징: 산림, 시내 아파트 인접 마을버스 절 안내 간판
- ◆ 조건: 정법포교하는 스님

0502)040-0408

### 토굴(암자) 안내

- ◆ 위치: 지리산 백운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 섬진강이 굽어 들어오며 흘러감
- ◆ 대지: 130평, 법당1개 요사채17개, 방4개, 보일러시
- ◆ 가격: 4천 5백만원

0664)781-4898

### 공양주 보살 보심니다

나이 55-65세사이

02) 888-3393